

“소부장 특화단지·기업 투자 유치 위해 분산에너지 필수”

시의회 정책토론회…“도심형 특화모델 조성 추진해 산업에 적용 시급” 신재생 발전 설비 용량·발전량 전국 0.9% 불과…에너지 자립률 높여야

광주시가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핵심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과 단지 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분산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확보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광주시 신재생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은 전국의 0.9% 수준으로, 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과 광주 에너지산업 대응 전략'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유창호 책임연구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광주는 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RE100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에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 주도의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지향하는 미래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력 체계로 바뀌게 됨에 따라 지자체별도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특별법에 따라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2026년부터 발전 사업자가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게 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도 가능하다.

발전소(량)가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적게 내고, 발전소(량)가 적고 소비가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발전소(량)가 많은 지역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시설 유치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는 광주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에 대한 광주시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동신대 전기공학과 이순형 교수는 "광주시는 풍부한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만큼 에너지 수요, 산업 구조,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산에너지 특화 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남권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연계전략'으로 발제한 광주연구원 박동원 책임연구위원도 호남권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초광역 에너지망 구축을 통한 에너지 자립, 첨단산업 유치 전략 등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호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분산에너지 분야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시 이도안 에너지산업과장은 "친환경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첨단·빛그린·미래차 산단 등에 도심형 특화모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광주지역은 지난 5월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으로 신규 발전사업이 불허돼 분산에너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화지역 운영을 위한 조례와 인센티브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수기(민주·광산구5) 광주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정책 목표가 됐다. 장거리 송전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RE100 기반 미래산업 전환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필수"라면서 "시의회도 분산에너지 확대와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세상의 AI, 빛나는 이곳으로' 아이콘 광주 개막 30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에서 세계적 인공지능 학술대회인 '아이콘(AICON) 광주 2024'를 개막했다. '세상의 AI, 빛나는 이곳으로'를 주제로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11월 1일까지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서 세계 고고학·역사학자 학술연구 축제 열린다

11월 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한국 고고학 전국대회'

국내외 고고학·역사학 전문가들의 학술연구 축제인 '제48회 한국 고고학 전국대회'가 11월 1~2일 이틀 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화와 경제'를 주제로 14개 세션에서 31명이 발표·토론자로 나서며, 3000여 명의 전공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교화 및 경제연구, 해외연구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고고학·불교고고학 자료 해석, 디지털 고고학, 고대초원길·바닷길 조사 성과 등을 토론한다.

이번 광주 개최는 광주시와 한국고고학회, 광주관광공사가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문화유산, 예술, 스포츠를 결합한 '아트-헤리티지 마이스'를 선보이기로 협약을 맺으면서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 개최를 기념해 31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기회도시 광주의 형성: 오늘의 하이테크는 내일의 헤리티지'를 주제로 '광주 문화유산 토크콘서트'도 연다.

토크콘서트는 고고학자, 철학자, 역사학자의 시선에서 광주 문화유산을 이야기한다. 임영진 마한

연구원장,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심용환 역사·교육연구소장이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역사 속 광주의 형성과정과 정체성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펼친다.

한편 광주시는 대표 마한문화유산인 국가사적 '신장동유적'과 조선시대 도자기 생산거점인 '충효동 가마터' 등 159개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최근 '동방제일누각'으로 불린 '회경루'를 중건했고, 문화유산을 인공지능(AI) 및 미디어 기술로 콘텐츠 산업화하는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연구원, 중국 산시성정부와 한·중 지방외교 활성화 모색

산시성 방문...사회과학원과 간담회

인적·학술적 교류 확대 방안 논의

전남연구원이 중국 산시성(山西省)을 방문, 산시성정부 대표단, 산시성사회과학원과 한·중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전남연구원은 29일 중국 산시성 정부(부성장 린홍위), 산시성사회과학원(원장 장진)과 함께 중국 산시성 리화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중 지방외교의 지평을 열거할 지역 간 인적·학술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린홍위 부성장, 장진 산시성사회과학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전남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산시성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등 지방외교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전남도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양 국가 및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이후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남도와 2007년부터 우호교류를 맺어온 중국 산시성은 중국의 석탄 생산, 금속 제련과 같은 중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최근 저탄소 친환경 발전

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산시성사회과학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당정 정책자문기관이자 종합인문사회과학연구기관으로, 전남연구원과는 2016년부터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해 경제·산업·문화·관광 등 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다큐·공익 광고로 문화 다양성 이해 돕는다

외국인 경험·도전 등 5편에 담아

전남도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니 다큐멘터리와 공익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남에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등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증가율은 54.5%로 전국 평균 증가율인 11.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급속한 외국인 유입과 다문화 사회의 확산으로 문화적 충돌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남도는 미니 다큐멘터리 시리즈와 광고 캠페

인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며, 외국인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을 줄이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외국인이 전남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 함께 살아가며 느끼는 긍정적인 점과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조명, 이를 통해 도민이 외국인의 삶을 이해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큐멘터리는 총 5편으로 각각 5분 내 짧은 분량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말부터 지상파 방송을 통해 순차적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사범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예능	유아교육과	8 2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For the Lord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www.kwangshin.ac.kr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